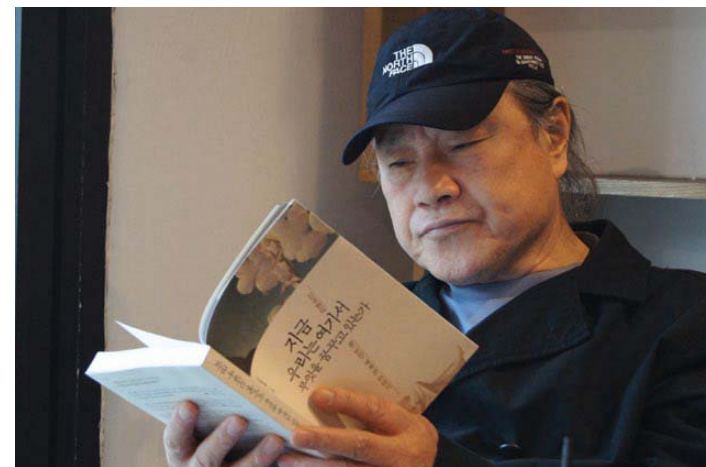


이제는 기독교 매체와의 인터뷰가 편안하다는 이장호 장로, 무려 19년의 공백을 깨고 그의 스무번째 영화 <시선>으로 돌아왔다. 한국의 기독교 극영화는 1948년 <죄없는 죄인>을 시작으로 꾸준히 제작되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거의 제작되지 못하다가 2010년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인 <회복>, <소명>, <울지마, 톤즈>, 올해 <아우레디>, <블랙 가스펠> 등이 기독교 영화의 맥을 잇고 있었다. 극장가에 기독교 영화가 연일 상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이.장.호를 만나다.

영화 <시선>으로 19년 만에 돌아온 이장호 감독의 시선

🎧 인터뷰어_신효영(본지 편집장), 사진_김소라(기자)

최근 개봉된 기독교영화들에 대한 이장호 감독의 시선
최근에 본 영화는 <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기독교 영화중에서 북한의 기독교를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는 지금까지 없었고, 영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길에 선 사람으로 외로운 작업을 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 김진무 감독을 만나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며 악수하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또 일반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것을 보며 기독교 영화가 한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스무 편의 장편영화, 그리고 시선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영화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시선>이죠. 제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기 전에 만들었던 이전의 영화들은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것처럼 부질없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시선>은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람을 본다는 것을 깨달은 후 만들어진 영화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만들 작품은 조금은 다른 영화가 될 것이다.”

2010년도 즈음 한 인터뷰에서

그랬었죠. 그때 뭔가 준비를 했죠. 그런데 쉽게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흥행이라는 유혹은 견디기 힘들습니다. 기독교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아니까 자꾸 피하게 되지요. 아마 요나처럼,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심정일 겁니다.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져있었습니다. 27년, 전성기가 끝나고 만드는 영화마다 실패하고, 교통사고 나고, 사람들은 주변에서 떠나고, 다른 사람들의 전성기를 보며 상처받고... 밑바닥에 떨어지니 ‘나는 되는 게 없는 놈이구나.’, ‘나는 비참한 놈이다.’,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안 된다.’, ‘나는 무능한 놈이다.’, ‘아무것도 못 한다.’ 그렇게 고생을 하니가 절망의 끝에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시각,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데 로마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개: 오늘의 영화 <시선>

영화 <시선>은 이슬람 반군에게 납치당해 죽음의 문 앞에 선 봉산단원들의 내면을 통해 종교인의 믿음에 대한 본질, 더 나아가 인간 내면의 가치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진다.

4년의 공백, 19년의 공백

70년대 말 그때도 4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는데, 저는 영화의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절대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영화는 사실주의적 표현을 해야 한다. 현실에 뿌리를 뒀야 한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의 공백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 영화들은 돈이나 명예로 저를 살리는 영화였고 <시선>은 저를 살리는 게 아니라 관객의 영혼을 살리는, 관객을 위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에게 <시선>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 감각과 시대정신, 이런 것은 있었지만 영혼이 없는 영화였어요.

한국영화 100선에

4편의 작품을 올린 감독,

한국의 리얼리즘 영화의 효시,

교회를 향한 그의 리얼리즘

신앙이라는 건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를 뺀 모든 삶, 이 세상의 삶이 영혼을 빼놓은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 벌고 먹고 사는 것,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 모든 것이 영혼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스개 소리지만 만약에 크리스천 대통령이라든지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아마 정부 부처에 '영혼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국가는 하나도 없잖아요.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아직 제가 영혼을 몰랐을 때의 차선택이었구요. 교회에 대한 저의 인식이라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개혁, 또 개혁이 필요하듯이 올바른 교회라면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인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고 비판은 그런 것을 올바르게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를 뺀 모든 삶,

이 세상의 삶이 영혼을 빼놓은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 벌고 먹고 사는 것,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 모든 것이

영혼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오히려 불편한 영화 도입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봤습니다. 교황청에서 배교를 한 신부를 파문시킨 것까지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은 그걸 넘어서 이 신부가 그대로 일본에 남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계속 자기 신념대로 가톨릭을 전파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영화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소개: 엔도 슈사쿠 <침묵>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시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던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 신부의 선교와 곧 이은 배교(背敎) 소식, 그 배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참복한 제자 신부가 겪는 고난과 갈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죽어 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침묵만 하고 계신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순교,

타인을 위한 배교,

거룩한 배교의 삶?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이타심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타심이라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화 속 조요한 선교사 같은 경우 배교도 했었고, 그로 인한 죄책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오히려 돈을 목적으로 가이드하는 선교사로 살죠. 그러나 다시금 회복되어 순교의 길을 택하며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순교와 거룩한 배교, 같은 맥락에 있는 것 아니냐고. <침묵>에 보면 바닥에 예수님 사진을 놓고 밟지 않으면 처형을 합니다. 로드리고는 신부님이 밟지 못하고 그저 보고만 있을 때, 예수님이 '밟아라,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밟히러 왔다'라고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기꺼이 밟지 않았을까요?





영화 속 여인

크쥐시토프 키에슬로브스키의 연작 영화 <십계>를 보면 에피소드마다 한 침울한 사람이 사건을 지켜보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얼음이 깨져서 사람이 연못에 빠져죽는데도 가만히 지켜보는 남자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묘한 감흥을 느꼈습니다. 뭐랄까, 우리를 보는 시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는 시선. 우리가 혼자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故) 박용식 집사님의 소천

같이 영화 촬영을 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 들어서 만났지만, 앞으로 많은 영화를 같이 하겠구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애정이 특별했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마치 순교 같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그 부인으로 부터 출석하는 교회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헌신하라는 말씀을 듣고 영화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작비가 적어서 출연료를 많이 줄 수 없었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결심한 거예요. 나중에 부인이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연기한 작품이 기독교 영화인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굳이 기독교, 교회가 들어가야

기독교영화일까

기독교영화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만, 저의 주제는 이타심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제 목표입니다. 이번 영화는 소재가 선교단체이지만 앞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 겁니다. 아마도 매우 좁은 길일 겁니다. 더 어렵고 더 능력이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만들만한 감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운철 감독, 이명세 감독, 배창호 감독 등 모두 크리스천이예요. 이 친구들에게 영화 만드는 사람으로서 자유가 주어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의 자유, 금전의 자유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제작비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족들 생계도 책임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니 열린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풍토가 자라나면 후배 감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독교영화 발전하기 위해

많은 기독교 영화제에 대해서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영화제가 서울뿐 아니라 투어 형태로 지방에서도 함께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의 교회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영화제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다보면 원래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젊은 영화인에게, 관객에게,

그리고 나의 세대에게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인문적 소양입니다. 어떤 영화를 만들든지 인문적 소양이 기초가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오디오, 비디오에만 익숙하게 자라서 세상에 대한 표현과 리얼리즘에 대한 기초가 없습니다. 현실에 텍스트를 뒤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테크닉이 아무리 좋아도 철학이 없으니 작품에 투영할 수 있는 눈도 없지요.

얼마 전에 기독교 영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학생의 단편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정신을 담으려고 애를 쓰기는 했는데 비속어를 사용하면 현대감각이 있는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요즘 젊은 세대가 빠지기 쉬운 테크닉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형수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형수에게 계속 거칠게 욕을 하면서 화개하라고 해요. 작잡하더라고요. 비속어는 생활언어잖아요. 그 생활언어의 과잉 사용으로 욕을 쓸 수 있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구분하지 못해 캐릭터를 평면적으로 만드는 등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영화 환경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직 돈만 보는 환경입니다. 기독교 영화인에게 꼭 하고픈 말은 그겁니다. 작품은 희생이 있어야 해요. 작가정신이 살아 있어야 하구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비극입니다. 상업영화를 보면서



재미만을 추구하는 관객은 영화 너머 그런 재미만을 양산하는 영화 제작자를 봐야 해요. 영화를 공급하는 공급자나 소비자나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질적인 영화를 볼 수 있는 관객도 없어지고 그런 영화를 만들 생각도 하지 않는 환경. 단지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이어지니까요. 19세기 말부터 인류는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대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단절됐어요. SF시대의 포스트모던 때문인



지, 아이들은 태어나서 말과 글을 배우기도 전에 엄청난 시청각훈련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린 아이가 TV에서 CM송만 나오면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뉴스가 나올 때는 관심을 갖지 않는데 CF만 나오면 관심을 가져요. CF의 특징이 컷이 수없이 바뀌면서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현란한 것에 시선을 빼앗긴다고요. 그렇게 거듭하는 동안 이 아이는 일종의 비디오의 특수훈련을 받는 겁니다. 지금 세대 어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엔 오디오 훈련을 해요. 공부할 때 교과서 놓고 집중해야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하잖아요. 이것 역시 특수한 오디오 훈련입니다. 우리는 성장소설, 교양소설, 고전 문학 등을 읽으면서 성장했는데 이 아이들은 오디오와 비디오만 가지고 특징하게 SF적 능력이 갖춰졌다고요. 지금까지의 인류와 달라진 거예요. 2천 년 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의 끊어진 맥을 이어가려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시험에 든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물췌어요. 바닥을 치고 있을 그때에 찬양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활마저도 의심스럽고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을 그때, 예배 끝에 주기도문을 외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몫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마침내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자.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자 다짐했습니다."



일흔이 넘는 거장의 작은 다짐이 다음 세대에게 가져올 소망의 고리로 반짝였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장호 감독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이장호 감독 소개 FILMOGRAPHY

〈별들의 고향〉(1974) 연출 / Heavenly homecoming to star
〈바람 불어 좋은 날〉(1980) 연출 / Good Windy Day
〈어둠의 자식들〉(1981) 연출 / Children of Darkness
〈낮은 데로 임하소서〉(1981) 연출 / Come Down to a Lower Place
〈바보 선언〉(1983) 연출 / Declaration of Idiot
〈무릎과 무릎사이〉(1984) 연출 / Between the Knees
〈어우동〉(1985) 연출 / Eoh Wu-dong
〈이장호의 외인구단〉(1986) 연출 / Lee Jang-ho's Baseball Team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1987) 연출 / A Wanderer Never Stops on the Road
〈명자 아끼고 쓰나〉(1992) 연출 / Myong-Ja Akiko Sonia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한
날 선 질문을 던지는

영화 시선



MOVIE INFORMATION

제작 : 크로스픽처스㈜
기획 : 김현우
감독 : 이장호
주연 : 오광록, 남동하, 박용식
장르 : 휴먼 드라마
수상내역 : 영화진흥위원회 마스터영화 제작
지원 선정작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의 오늘-파노라마 초청작

PROLOGUE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들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만의 견고한 세계관을 구축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세계관은 심각한 도전에 처하게 된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날 것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 <시선>은 이슬람 반군에게 납치 당해 죽음의 문 앞에 선 봉사단원들의 내면을 통해 종교인의 믿음에 대한 본질, 더 나아가 인간 내면의 가치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진다.

과연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떠한 모습의 자신과 만나게 될 것인가.

